'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성공 개최 시민 토론회

"광주 비전 제시 문화엑스포로"

문화수도·빛의 도시 등 큰 틀서 접근해야

빛 연합 55개 도시 네트워크 적극 활용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9 광주세계광(光)엑스포'는 산업엑스포를 넘어 '문화엑스포(Culture Expo)'로, 엑스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광주의 중장기적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포스트엑스포(Post Expo)'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 주최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성공기원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이무용 전남대 교수는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본 광엑스포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광엑스포는 그 목적을 광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광산업도시로서 비전을 실현하는 광산업 엑스포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의 대표 정체성은 광산업의 도시라기 보다는 광산업을 활용한 문화수도, 빛의 도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엑스포를 단순한 광산업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문화수도·빛의 도시 마케팅 차원의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수는 광엑스포를 전시·콘텐츠, 건축·설계, 철학·학술, 관광·마케팅, 빛의 축제(문화행사) 등 5대 분야가 융합된 '문화엑스포'로 기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빛의 축제'는 광엑스포의 부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엑스포 전반을 관통하고 엮어주며, 재현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빛의 축제의 5대 요소로서 정체성과 프로그램, 공간, 주체, 네트워킹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공간 구성과 건축물 역시 광엑스포의 철학과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빛 기술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도시 및 관광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빛관광(Light Tourism)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광엑스포 마케팅 전략으로 도시마케팅·문화수도·첨단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도시 전문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빛의 도시연합(LUCI)에 가입한 33개국 55개 도시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희망의 빛 거리', '산업의 빛 거리', '빛의 터널' 등 다양한 LED(발광다이오드) 빛 거리 조성도 제시했다.

특히 프랑스 리옹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빛 비엔날레(Light Biennale)를 개최하고, 2010년 상하이엑스포 및 2012 여수엑스포와 연계해 상호 홍보와 방문객 유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세계광(光)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을 주제로 내년 10월 9일부터 광주 상무시민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금남로 일원에서 28일간 열린다. 주제 전시체험, 산업전시 및 컨퍼런스, 빛의 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런 머리 어때요?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광주시장배 미용경진대회' 고전헤어부문에 참가한 미용사들이 한복을 입은 여성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U대회 재도전 각계 잇단 지지 성명

박준영 지사 "적극 지원"

광주시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 선언을 환영하는 각계의 성명이 23일에도 줄을 이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광주시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재도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도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두 번 도전해서 결국 성공했다"며 "광주는 민주화를 이끌어낸 평화의 도시이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광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낼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박 지사는 이어 "광주시민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왔듯이 이제는 전남도민이 함께 뛸 차례"라며 "광주와 전남은 미래를 공유할 준비를 함께할 것"이라고 광주시의 U대회 유치 지원을 다짐했다.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2015 U대회 유치를 통해 광주는 국제규격의 경기장 및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뿐만 아니라 광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인식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와 광주시관광협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광주시지회,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회 등도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재도전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광주의 글로벌시대를 여는데 회원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박광태 광주시장의 재도전 선언 이후 경제계와 체육계 등은 지역경제 발전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들어 대체로 환영한 반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재도전 결정 절차와 불투명한 효과 등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북구 우수시책 경진대회 '주부 순찰단' 최우수상

광주시 북구는 최근 '2008 고객만족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 최고의 우수 시책으로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을 선정했다.

북구는 네 차례의 심사를 거쳐 올해 추진한 모두 49건의 시책 중 최종 우수시책 7건을 뽑았다.

우수상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책 읽는 마을 만들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1천원 행복플러스 나눔'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실' '지역사회복지자원 사례회의 운영'이 뽑혔다.

'동네한바퀴 주부 순찰단'은 787명의 주부순찰단이 동네의 불법쓰레기, 환경오염, 도시미관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북부경찰과 함께 아동지킴이 운영을 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

첨단지구 어린이 교통공원에 교통안전 체험관 2억7천만원 들여 리모델링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내 어린이교통공원에 교통안전체험관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23일 "개원 10년이 지나 실내 전시시설이 노후화된 어린이교통공원내 1층 전시실을 리모델링해 교통안전체험관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1998년 첨단지구에 5만7천200㎡(1만7천303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실내 전시실과 야외 체험학습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더 이상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억7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며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 다음달 16일 응모작 제안서를 접수키로 했다. 응모작은 1개 업체 당 1개 작품에 한정한다. 지난 22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11개 업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의 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062-613-6724).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